

“외국인과 결혼 자연스럽다”

광주시민 가족 수용성 조사

외국인과 결혼에 71.1% 찬성·20대 86.6%

법적 혼인·혈연에 의한 가족이 정상 68.1%

광주시민들은 외국인과의 결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난 8월3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가족 다양성 수용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가족의 정의에 대해 법적 혼인이나 혈연에 의한 가족을 정상적인 가족으로 인식한다는 답변이 68.1%로 가장 높았다.

이러 비혼인·비혈연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인식(60.3%)했으며,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정서적 유대와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라는 인식(38.3%)이 뒤를 이었다.

다양한 가족의 모습에 대해서는 외국인과의 결혼(71.1%), 이혼이나 재혼(66.0%),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56.0%)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수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47.3%), 자녀를 가지지 않는 부부(42.8%),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30.9%),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17.4%)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용도가 낮았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대는 독신(91.8%), 외국인과의 결혼(86.6%), 자녀 비출산(86.1%), 이혼·재혼(81.6%), 비혼 동거(79.6%) 등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수용도가 높았다.

가족 다양성 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90.2%), 저소득 미혼모부(88.1%), 다문화 가족(77.0%), 1인가구(74.6%) 순으로 집계됐다.

기동취재본부



이용섭 광주시장, 코로나19 대시민 호소문 발표 이용섭 광주시장과 이병훈·민형배 국회의원,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시교육감 등이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동참과 연대의 호소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성인지정책 정부가 인정...국무총리상 수상

성별영향평가 전국 1위

광주시의 성평등 정책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정부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총 3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광주시가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하며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기관별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진행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시장공약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총 162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벌여 성인 지 예산 60건을 확정했다. 또 기존 여

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국으로 승격했다.

광주시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기동취재본부

한국철도 추석승차권 예매 다음 주로 연기

한국철도(코레일)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책에 맞춰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를 다음 주 8일과 9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국철도는 추석 대수송기간(9/29~10/4) 동안 열차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장척 좌석만 발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긴급 시스템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매를

연기한다는 것.

이에 따라 2일과 3일 예정된 명절 예매는 경부선 등은 8일(화)로, 호남·전라선 등은 9일(수)로 각각 연기한다.

다만, 지난 1일 예매를 완료한 노선, 장애인 등의 추석 승차권은 그대로 유효하며, 결제 기한은 일주일 연기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농업소득 감소하는데” 농식품부 예산비중은 7년만에 3%선 붕괴돼

내년도 정부안에 편성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국가전체예산 대비 3%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에 따르면 총지출 규모가 16조 1424억 원으로 국가전체 예산 555조8000억원 대비 2.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대로 확정될 경우 2013년 4.0%에서 2014년 3.8%로 떨어진 이후로 국가전체대비 3%대를 근근히 유지했던 농식품부 예산비중은 7년 만에 3%선 마저 붕괴되고 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자급이 국가안보의 문제로 제기되고, 각종 자연재난과 기후위기, 농산물 수급불안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대폭적인 농업분야 재정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국회차원의 농업분야 예산증액이 시급한 사업들로 ▲식량자급을 제고 ▲농수축산인 금융지원을 위한 농신보 예산증액 ▲재해보상 현실화를 위한 재해대책비 ▲수해피해 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등을 제기했다.

농식품부 자급률 제고 사업중 특히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한 톨도 반영되지 않아 국회차원의 예산증액이 강력히 요구된다.

동구, 코로나시대 ‘언택트 행정’ 앞장

광주 동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급변하는 사회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언택트(Untact·비대면) 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동구는 소통·화합·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달 첫째 주에 개최하는 ‘공감마당’을 지난 1일 첫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 임택 동구청장은 집무실 컴퓨터 화상카메라 앞에 앉아 코로나 방역으로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신규 역점시책 발굴, 추석맞이 시민생활안정 종합대책 등을 당부했다.

구는 이번 화상회의를 계기로 코로나 확산예방 차원에서 오는 7일부터 확대간부회의 등 기존에 진행해오던 대면회의를 전부 비대면 화상회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광주 서구는 지난 1일 창의성·전문성을 발휘한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장애인회맹복지회 김명숙 팀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 내 목욕시설의 열악함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관내 목욕탕을 적극 섭외해 장애인 전용목욕 서비스를 제공했다.

우수 등급을 받은 기획실 김형욱 주무관은 광주지역 최초로 재활용 쓰레기를 넣으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AI 재활용 수거기 ‘네프론’ 설치를 추진했다.

아울러, 장려 등급을 받은 건설과 주민수 주무관은 보도에 설치된 가로등 분전함 부피를 축소하고 어두운 가로수길에 보행등을 추가 설치하는 등 걷기 편한 거리 조성에 힘썼다.

남구, 9월부터 석달간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광주 남구는 2일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0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날부터 올해 연말까지 석달간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5년 내 신규로 취득한 모든 농지이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해 소유한 농지와 관련법에 따라 농지저당기관이 법 규정에 의해 취득해 소유한 담보 농지,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농지, 취득 후 8년 이상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된 농지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북구, 주민참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광주 북구가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주민 문화향유 증진에 나선다.

북구는 2021년 2월까지 문흥동 지하보도 일원에 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우리동네 미술'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북구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과 함께 다양한 유형의 미술활동을 통해 지역의 공공장소를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오는 8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37명 이상으로 구성된 작가팀을 공모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신가동 주민자치회, 온라인 주민총회 개최

1일 광산구 신가동 주민자치회(대표 장승수)가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주민총회를 열고, 마을의제 우선순위를 정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진행된 이날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은, 7월 동 주민자치회가 출범시킨 ‘신가동 마을계획단’이 제안한 의제 △풍영정에서 신나게 놀자 △경제공동체(소상공인)활성화 △신가동 세대통합 복합문화센터 등 8개를 놓고, 광산구 모바일 시민참여 플랫폼 ‘광산ON’과 4곳 현장투표소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장승수 신가동 주민자치회장은 “총회에서 우선순위가 결정된 의제를 적극 추진하고, 코로나 시대에 맞는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임형택 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 원형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리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합니다.

국민 이애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평균 15,330원
건강보험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소득구분	보험료부담액	급여비
50위	240,833원	1.1배
40위	125,531원	1.7배
30위	79,147원	2.1배
20위	48,103원	2.7배
저소득층 10위	26,697원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